

**바르샤바** 조약이라는 군사기구의 족쇄를 벗어버린 지금, 소련외의 회원국들은 갑자기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나토에 소속된 서방진영과 소련이라는 군사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동부 유럽의 5개 국가들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안보문제가 상존해 있는 가운데 시급한 경제, 정치 및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된다. 다소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이제는 나토가 보장하는 안전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나토는 애초 이들 국가의 민주적인 변화들을 반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의 자격부여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나토가 도울수 있고 도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나토가 이 5개국 新정부들의 관심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나토가 제공할수 있는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전 공산당 간부들이 영향력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민주적인 지도자들은 동구권에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련 보수파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에서 이러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군부를 보면 대부분의 고위간부가 소련 장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소련 군사학교나 참모대학 출신도 많다. 그들의 전술이나 군사교리, 장비 및 무기들은 소련 것과 일치하며, 이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들 국가의 민주적인 변화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더군다나 각국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 조약기구가 없이 활동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더 큰 조직을 찾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해체하는 회의장에서 걸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냉랭하였다. 소련의 고위 간부들은 이전 우방국들에 대해 은혜를 모르고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전의 유대관계가 전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격동에 처해 있으며 내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유고 연방군의 세르비아 장교단은 대체로 정통 공산주의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적인 소요 발생시는 소련의 도움을 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소련의 경제적 뒷받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전 위성국가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해체된 COMECON(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을 대체하기 위한 소련의 경제적 주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소련의 상당한 사업투자와 함께 합작사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소련의 경화부족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은 가치를 상실한 루블 대신 달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신하기 위해 소련과 5개 국가간의 별도 쌍무조약이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제안된 안보조항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들 국가로부터 행동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수도 있는 것이다.

一笑一少一怒一老

“흥길동” 남편

의부증이 심한 한 부인이 남편의 귀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자 남편의 친구 5명에게 속달 전보를 띄웠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혹시 댁에 있는지요? 곧 회신 바랍니다」

그날밤 늦게 돌아와 보니 똑같은 회신 이 5통이나 와 있었다.

『우리집에 와 있음』

더구나 이 새로운 정부들은 자국내에서 소련의 비밀활동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소련의 비밀기관들이 이전과 같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전국적인 정보망을 이용할수 없게 됨으로써, 이 기관들은 정보획득과 배포를 위해 자체 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들이 복합됨으로써 안전보장을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새로운 정부들은 나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관한 것은 물론 습득해야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나토는 종종 국외자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방위기구로서 나토의 역량은 통합된 군사조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비록 정치적인 면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목적은 독립적인 주권을 지닌 회원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

브뤼셀의 본부는 단순히 각국들이 활동할수 있는 터전에 불과한 것이다. EEC(유럽경제공동체)의 위원회와는 달리, 나토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특히 나토는 법적으로 주권국가와 조약을 맺을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회원국들은 단지 뜻을 같이하는 다른 국가에 동의할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나토는 변화중에 있으며 책임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대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 전역에 자신감과 협력의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현재의 주요 목표이다. 이는 소련이 이전 자국의 우방국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수 있는 조치들이나 또는 나토와 기타 유럽국가와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조치들이 일어날수 없다는 의미이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불안하게 이어지는 데탕트의 물결을 바꾸어놓지는 않더라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통일 독일의 지속적인 나토 참여를 인정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동구권 국가들이 더욱 안전해졌음을 느낄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과 나토간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교환, 교육등으로 군사적인 면도 다루어질수 있도록 연락 활동이 확대, 심화될수 있을 것이다.

각 회원국의 각 계층을 대상으로한 나토의 방문 프로그램은 동구권에서의 방문도 포함될수 있도록 확대될수 있을 것이다. 현재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저술 자료들도 이들 국가들이 이용가능하게 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활동이 소련에까지 확대된다면 우방국을 접수한다는 비난은 없게 될 것이고 소련 간부들이 나토를 더욱 잘 파악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토와의 이러한 접촉과 친숙함은 유대관계 정립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사소한 방편에 불과하다.

다행스럽게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기회는 창은 지금 열려 있다.

이에따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북대서양협의회 외무장관회의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외무장관들은 중·동부 유럽국가와 관련한 특별선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외무장관들은 모든 유럽국가 영토에 대한 불가침을 강조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부 체제로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럽의 안보가 분리될수 없다는 그들의 신조를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선언은 조약이 아니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언약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사회내의 민주세력은 상당히 안도할수 있을 것이다.(煥)

(Miltech 91/5)